
통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봄날의 눈석이>,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를 중심으로

Two Views of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Focusing on <Thaw of Spring Day>, <Namnam Buknyeo> and <Wedding Campaign>

최은진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Eun-Jin Choi(letresor@empal.com)

요약

분단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 즉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분단관과 통일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국가적 상처이자 염원이다. 분단이라는 상태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항상 통일에 있어왔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사되며 재현된다. 특히 영화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얼마나 다른 통일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영화인 <봄날의 눈석이>와 남한 영화인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를 중심으로, '공간', '장애물', '로맨틱한 장치', '결혼', '편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남북한이 갖고 있는 통일관을 비교 분석한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결혼을 통해 통일을 꿈꾸는 이 영화들은 남북의 통일관을 엿보는데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일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향한 남북의 동상이몽을 조망한다.

■ 중심어 : | 분단 | 통일관 | 로맨틱 코미디 | 북한영화 |

Abstract

Korea is a divided country, therefore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view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The state of division is national hurt and the unification is aspiration irrespective of different environment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Unification has been national goal since Korea was divided, it represents for a variety forms. Especially films show the relationship and prejudices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thesis focus on representation of different views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aw of Spring Day>, <Namnam Buknyeo> and <Wedding Campaign>. First one is the film of North Korea, and the others are films of South Korea. These are romantic comedy films, we could see the views of unification through marriage. And we would find out the unification in their own two different ways.

■ keyword : | Divided Country | View of Unification | Romantic Comedy | Films of North Korea |

I. 서론

한국이 분단국가인 한 통일에 대한 화두는 항상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마지않는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은 시대를 따라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분단되어 있는 두 나라, 즉 남한과 북한의 통일관도 분단된 기간만큼이나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다. 서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노선을 걷다 보니, 같은 민족이라는 대 명제 외에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가 꿈꾸는 통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들은 각자 다른 형태로 문화 속에 나타나는데, 그 중 영화는 서로가 지향하는 통일의 모습을 문학(시나리오)과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가 용이하다.

남한영화에 등장하는 북한인들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1970-80년대의 영화들에 비해 요즘의 영화들은 북한인들의 인간적인 면도 그리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편이다. 예전의 반공교육을 통해 가지게 된 북한사람들의 이미지는 주로 ‘사람’보다는 ‘북한’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열혈 공산당인 것만 같았고 인간미란 전혀 없는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인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영화들은 북한사람을 ‘북한’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영화적 재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영화를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논문의 발상은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이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서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를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작업은 흥미로웠고, 양 국가의 영화들이 이러한 점을 영화에 잘 반영하고 있었다. 북한영화인 <봄날의 눈석이>와 남한영화인 <남남북녀>는 서로가 갖고 있는 통일관과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의 텍스트로

선정했고, 이 영화들의 구조는 ‘비교영화론’이라는 큰 범위 속에서 절묘한 대구(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의 결혼원정기>는 로맨틱 코미디인 <남남북녀>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메워 줄 수 있는 부가적인 텍스트로 사용할 것이다.

II.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우리는 외부력장의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통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8권, p.369)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반관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중, 2003.2.25)

남북이 한 목소리로 통일을 하자고 소리를 드높이지만, 그 방향성은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다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다르며, 통일 이후의 모습도 다르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의 궁극적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독립과 번영의 유일한 길이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언제나 ‘민족’과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어 나타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단결을 통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아버지 수령을 대표로한 가족공동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것

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를 가족이라는 끈끈한 혈연관계에 대한 애정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경제위기를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주체사상에 민족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체제붕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1]. 이렇듯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은 통일에 대한 의지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난관 극복에도 사용하는 등, 모든 상황에 있어서 결국 민족과 통일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할 인물이 바로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라는 국가의 아버지라는 점이다.

한편, 남한에서 꿈꾸는 통일은 북한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이 통일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북한의 '명분인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이 아닌,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위한 통일, 경제적 효과를 위한 통일'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남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논한다. 통일에 대한 방법도 주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을 이야기 하고 있고, 혹은 그 반대로 통일 후에 남한사람들에게 지워질 경제적 짐 때문에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도 부지기수다. 북한과 남한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인 북한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정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통일을 논하는 두 나라를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봄날의 눈석이>와 <남남북녀>를 중심으로 영화의 구조와 포인트를 찬찬히 짚어 나갈 것이며, <남남북녀>에서 부족한 부분을 <나의 결혼원정기>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나갈 것이다.

III. 영화에 나타난 통일

<봄날의 눈석이>와 <남남북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구(對句)를 이루고 있어, 비교영화론적인 연구에 용이한 텍스트이다. 일단 북한과 남한의 남녀가 만나 결혼

을 하고 그 결혼이 통일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과, 남한과 북한의 남녀가 각각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각각의 나라가 주시하고 있는 통일의 장애물을 상징하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해결책 또한 서로의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해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영화는 '결혼=통일'을 전제로 서로 같은,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1. 만남의 공간

<봄날의 눈석이>와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는 모두 남한과 북한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동등하게 만나기 위한 장치로 다른 나라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의 남녀가 서로 만나기에 남한과 북한의 공간은 둘 중 한명이 탈북자이거나 월북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봄날의 눈석이>의 남수와 영이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로 나오고, <남남북녀>의 철수와 영희는 중국 연변의 고분발굴현장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의 결혼원정기>의 만택과 라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촌 총각과 커플매니저로 만난다. 이들은 모두 제3국에서 만나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된다. 아 이러니하게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동안 이산가족상봉이나 금강산 여행 등 서로 마주칠 기회는 많이 늘었으나, 그것 또한 제한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만나게 되는 설정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3국에서 만나는 설정으로 인해, 남북의 남녀가 서로 동등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게 되더라도, 서로 통일을 하기 위해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결혼 앞에 놓인 장애물

남한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물은 위에 언급한 대로 서로 다르다. 정치 체제가 다른 것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남한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압력과 남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주의에의 열망이 장애물이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각각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일단 <봄날의 눈석이>에서 남수와 영아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은 영아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갖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조총련에 대한 편견이다. 영아의 외삼촌은 영아의 결혼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동경을 방문하는데, 남수의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그가 조총련계 청년이라는 것을 빌미로 영아와의 결혼을 방해한다. 영아의 아버지와 미국에서 초청되어 온 씨애플 대학 역사학 교수 류철문은 영아의 결혼을 찬성하지만, 영아의 아버지가 영아의 외삼촌에게 진 생명의 빛 때문에 그를 꺾지 못한다.

결국 남수와 영아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뻔한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오해의 골이 너무 깊었고, 남한이 너무 물질만능주의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됨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김일성 수령을 따라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걷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메시지를 남한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2]. <봄날의 눈석이>에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오해가 깊어지게 된 이유를 플래시백을 이용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과거를 통해 정체성과 정통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과거는 그들의 관계에서 장애물로 기능하는데, 남수와 영아의 잘 못이 아닌 부모세대의 오해 때문에 둘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남수와 영아의 관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남한 영화인 <남남북녀>에서 철수와 영희의 사랑 앞에 놓인 장애물은 다름 아닌 ‘국경의 장벽’이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결혼관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는 있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남한의 경우 사랑이고 북한의 경우 부모의 허락이다. 북한의 가족멜로는 내용면에서 자식들의 결혼

문제에서 비롯된 세대갈등, 가부장적 질서와 사회질서의 변화양상을 담고 있다[4]. 반면 <남남북녀>는 로맨틱코미디의 장르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관습인 부모의 허락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철수와 영희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희와의 결혼 허락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받는 장면이 등장함으로써 북한 내의 아버지 수령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철수와 영희에게 가장 난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국경의 장벽’인데, 이것은 둘의 사이가 북한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함께 도망치려는 장면과 각각의 나라 경찰에게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또한 남한의 국가정보원 원장인 철수의 아버지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것에서 둘의 관계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둘이 결혼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철수가 영희를 만나러 북한에 가게 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남한의 철수와 북한의 영희가 결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가 남한,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결혼원정기>에서 만택과 라라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라라가 탈북자라는 사실과 라라의 직업 때문이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남한,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가는 탈북자 신분인 라라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택에게 신부를 짝지어줘야 하는 커플매니저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는데 곤란을 겪는다. 라라의 커플매니저라는 직업은 직업윤리상 고객과는 아무 연정도 품을 수 없다. 또한 소속된 회사에서도 그녀가 탈북자라는 핸디캡을 이용해 그녀를 부러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직업과 신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만택은 그녀에 대한 마음만 겨우 전달한 채 홀로 남한에 돌아오게 된다. 당찬 여자인 라라는 만택을 만나기 위해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남한에 오게 되고, 결국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만택과 라라의 경우도 <남남북녀>의 철수와 영희처럼 서로 북한, 남한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케이스이다.

이렇듯 <봄날의 눈석이>와 <남남북녀>, <나의 결혼

원정기>는 결혼의 장애물 설정에 있어서 서로의 상황과 문화적 코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보는 통일의 장애물인 외세와 내부의 오해 해결은 북한의 정치적 방향성과 통일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부모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위기를 겪는 남녀의 모습을 통해 북한의 가족멜로드라마를 엿볼 수 있다. 반대로, 남한의 경우는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보다는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전개시켜나가기 때문에, 둘 사이의 장애물은 '국경의 벽'이 가장 두드러진다.

3. 남북한의 연인을 위한 로맨틱한 장치

남한과 북한은 각각 영화를 만드는 제작방식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만드는 목적까지 너무나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고, 영화의 주제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남한 영화의 다양성과 달리 북한은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 할지라도, 표현에 있어 훨씬 자유로운 남한의 영화들은 연인이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데 제약이 없지만, 북한의 경우 결국 김일성 수령의 교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결론으로 영화를 마무리 짓는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남수와 영아의 드라마틱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다.

남수는 영아와의 결혼이 좌초당하자 핫카이도로 떠나고, 그런 남수를 잡기 위해 영아도 남수를 따라 간다. 하지만 얼음장 같이 대하는 남수 앞에서 영아는 독약을 먹음으로써 자살을 감행하게 되고, 영아의 자살소동은 양가를 화해하게 만든다. 이 설정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유사한 구조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한 반항과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인시키려는 것, 그리고 결혼 앞에서 좌절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마음을 자살로 묘사한 <봄날의 눈석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설정으로 이 영화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든다.

<남남북녀>의 철수와 영희는 각각 남과 북의 대학생 대표로 고구려 상통고분 연변 발굴단에 참여하게 된다. 오로지 여자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철수에게 도도하고

간간한 여자 영희는 공략대상 1호가 된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지자, 전략을 세우던 중 그녀가 상통고분을 먼저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철수는 그녀보다 먼저 고분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발굴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철수가 고분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고분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바로 이 둘의 관계를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 매개가 된다. 그 그림에는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연인들이 국경을 넘는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 고구려에 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철수와 영희처럼 사랑을 위해 국경을 넘는 연인들의 그림은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복선이 되면서, 결국 5년 후에 철수가 영희를 만나러 평양에 갈 때 이 고분 벽화를 가져가게 된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둘이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법칙을 사용하고, 그 목표 달성의 결과가 곧 이 연인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복선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이다.

연인의 사랑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장치가 있게 되면 더욱 로맨틱해지는 것이 영화의 컨벤션이다. 이 두 영화 역시 이러한 컨벤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에서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할아버지들 중 한 할아버지는 송환을 포기하는데, 이유가 남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 신념의 값비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 할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픽션보다도 더 픽션 같은 이 다큐멘터리처럼 영화 속의 사랑은 비록 가공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친다 싶을 지라도 '사랑'이기 때문에 허용되고 이해된다.

4. 결혼으로 예견되는 통일

<봄날의 눈석이>의 마지막 장면은 빙산이 부서지면서 바다에 떨어지고 그 눈들이 녹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몽타주씬이다. 남수와 영아의 결혼식에서 영아의 아버지가 '봄날의 눈석이가 녹듯이 남북의 오해도 이같이 녹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여지는 장면이다. <봄

날의 눈석이>는 통일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진행되는 영화이다. 따라서 영화의 대단원에서 눈 녹듯 남북의 응어리가 녹아서 통일을 이루자는 염원이 담긴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통일관을 정리하자면, 그들을 가혹한 운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은 것은 외세 즉 미국이며,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올바른 영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통일의 과업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5] 이것은 북한이 고수해 온 통일관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화 전체적으로 남수와 영아의 러브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그 두 가문이 겪어온 고된 역사가 플래시백으로 삽입되는데, 일본과 미국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한국인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외세를 배격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김일성 수령의 교시로 인해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서 통일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김일성 수령의 교시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 <남남북녀>에서 보여주는 통일관은 북한의 통일관과는 많이 다르다. 철수와 영희가 각각 경찰에 끌려감으로서 서로 떨어지게 되는데,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철수가 평양에 상통고분에서 발굴한 벽화를 들고 가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상통고분의 벽화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철수는, 자신의 설명이 끝나자 객석에 앉은 영희에게 다가가 프리포즈를 한다. 그런데 철수가 영희에게 내민 물건이 바로 5년 전 상통고분에서 영희가 잃어버렸던 운동화 한 짝이다.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차용하고 있는데, 상통고분이 부분적으로 무너져서 둘이 갇혔을 때 영희가 운동화 한 짝을 잃어버리고, 그 때 철수가 영희에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발각되어 함께 도망치는 상황에서 철수가 북한 당원들에게 많이 맞게 되고, 영희가 철수에게 몰래 찾아왔을 때, 철수가 영희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자, 영희가 ‘마차가 호박으로 변해버려서 늦게 왔다’고 말한다. 5년 후 철수가 영희에게 운동화 한 짝을 내밀자, 영희가 철수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는다. 이때 철수가 하

는 대답이 ‘마차가 호박으로 변해버려서 늦게 왔다’이다.

철수가 남한을 상징하고 영희가 북한을 상징하는데, 신데렐라인 영희를 왕자님인 철수가 데리러 온 것이다. 여기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을 드러난다. 북한을 동등한 한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한 왕자님이 구해 주어야 할 부엌데기 신데렐라가 북한인 것이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북한에 찾아간다는 것도 통일을 성급하게 이루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고 넉넉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인인 영희가 남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인인 철수가 북한에 간다는 것도 통일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5.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편견

<봄날의 눈석이>,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의 주인공들이 남한과 북한의 커플만큼 그들은 각 나라의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 서로에 대한 편견들과 오해들이 스테레오 타입화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봄날의 눈석이>에서는 남한사람은 물질만능주의로, 북한사람은 현명한 중도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영아의 외삼촌인 강상호는 경제적으로 보잘 것 없는 남수네를 경멸하며 결혼을 극구 반대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표상으로 그려지는데, 영아를 데리고 간 술집에서 댄서들의 스트립쇼를 보려고 돈을 마구 뿌린다는지, 영아의 어머니와 함께 남수의 집에 가서 영아와의 결혼을 단념하라고 말하는 장면, 영아와 남수의 결혼을 끝까지 극구 반대하는 장면 등에서 그를 남한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반면, 씨애틀 대학 교수인 류철문과 평양 대성 무역상사 참사인 김학성은 남수와 영아의 결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온전한 정신과 이념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강상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남북녀>에서는 북한의 인물들이 회화화되어서 묘사된다. 코카콜라 한 병에 넘어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싸이의 노래 ‘챔피언’을 가사까지 적어가며 외우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마루체조 동작으로 춤을 추어

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영화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촌스러운 북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과장된 북한 사투리로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로 그리는 것 또한 북한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결혼원정기>는 <남남북녀>보다 좀 더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만택과 라라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시골노동자 만택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원정결혼을 온 이유다. 다시 말해, 만택은 남한사회에서 결혼도 못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라라의 경우, 그녀가 비록 탈북자이긴 하지만 그녀의 똑 부러지는 면이나 악바리 근성, 그리고 기타 다른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사회에서 꽤 교육받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도저히 신붓감을 구할 수 없던 만택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젊고 예쁘고 똑똑한 여성 라라를 신붓감으로 만났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IV. 결론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 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 모든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은 정치적 공세, 정치 선전만 하여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문학예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22)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통일백서 2005』, p.16)

남북이 갖고 있는 통일관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하던 말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렇다면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깝게 하고 멀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봄날의 눈석이>,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가 바로 결혼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결혼은 좁은 의미에서 남·녀의 결합일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두 집안의 결합일 수도 있다. 이 세 영화가 결혼을 다루면서 상징적으로 통일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은 결혼처럼 두 남녀 또는 두 집안이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못하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너무 오래, 깊이 쌓여서 그것들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들에서 그들은 그 장애물들을 견고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했다. 통일을 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몇 십 년 동안이나 통일에 대해 얘기해왔지만, 정말 통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통일을 원하기는 한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양국이 영화를 통해 드러낸 속내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또한 그 통일에는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힘든 통일의 과정을 각오한 두 나라가 만나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일만 남은 것 같다. 적어도 이 세 영화를 통해서 본 통일이라면 말이다.

참고 문헌

- [1] 서성희, “<민족과 운명> 담론의 민족주의 연구 : 연속편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을 중심으로”,

대안 한국영화 이론의 모색 : 욕망/스타/북한, 동국대학교 BK21 대안 영화이론 개발 연구인력 양성사업팀, p.4, 2006.

- [2] 김창해, “민족적량심의 웨침 : 예술영화 <봄날의 눈석이>(제1~2부)를 보고”, 조선영화년감, 문예출판사, p.183, 1986.
- [3] 이명자,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 : 플래시백과 역사재현”, 영화로 쓴 반(反) 역사 :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의 균열, 동국대학교 BK21 핵심분야 <N세대의 이미지 문화> 연구인력양성팀, p.42, 2002.
- [4] 이명자, 북한 영화와 근대성 : 김정일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역락, 2005.
- [5]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 생각의 나무, 2002.

저 자 소 개

최 은 진(Eun-Jin Choi)

정회원



- 2003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불어불문과(문학사)
 -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7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영상미디어센터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대중문화연구, 영화산업, 영화사